

2013년 3월 14일 Vol. 13 No. 8 ISSN 1976-0515

# 한 · 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김영귀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ygkim@kiep.go.kr, Tel: 3460-1188) 서진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3460-1156) 김종덕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kim.jd@kiep.go.kr, Tel: 3460-1181) 이승래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srlee@kiep.go.kr, Tel: 3460-1157) 강준구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Tel: 3460-1058) 김혁황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ygkim@kiep.go.kr, Tel: 3460-1188) 이준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ygkim@kiep.go.kr, Tel: 3460-1188) 이주미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mlee@kiep.go.kr, Tel: 3460-1052)



### 차 례 ● ● ●

- 1. 머리말
- 2. 상품교역 평가
- 3. 서비스 평가
- 4. 투자 평가
- 5. 시사점

### 주요 내용 ●●●

- ▶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3~12월간 對미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와 -7.7% 변화했으나, 한미 FTA로 인한 효과는 각각 12.7%와 7.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관세 이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업분야의 피해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제조업의 성과는 섬유, 전자, 일반기계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나 자동차 부품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의 수입 활용률은 52.9%로 수출 활용률 41.7%보다 높아 對미 수입에서 한미 FTA가 보다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서비스 분야에서는 단계적 개방과 일정기간 유예로 인해 법률분야에서만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진출 증가와 이에 대비한 국내 법무법인의 대형화가 관측되었음.
- ▶ 미국의 對한 투자는 총액과 건당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미국의 비중이 22.6% 까지 상승한 반면, 한국의 對미 투자는 발효 전인 2011년 급증한 이후 안정세로 돌아서 선제적 투자가 발생했음.
- ▶ 한·미 FTA의 성과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수출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제도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1. 머리말

-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된 후 2011년 추가협상을 거쳐 한·미 양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됨으로써 협상개시 선언 이래 6년 만인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음.
- 발효 이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이행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향후 협정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행체계를 성공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평가
- 이후 FTA 분야별 위원회 회의에서는 양측이 한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임.

표 1. 한·미 FTA 발효 이후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주요 결과

=1.01	70 .110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2012년 5월 16일)	— "공동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채택, "분쟁해결 모범절차 규칙"합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 (2012년 6월 7~8일)	<ul> <li>상품무역위원회: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협정상의 의무이행 평가 및 세관분야의 협력사항</li> <li>무역구제위원회: 무역구제 조항의 국내적 이행 현황 점검</li> <li>서비스투자위원회: 국경간 서비스, 투자 및 통신분야의 양측 관심사항 논의</li> <li>ISD: 추후협의에 대한 양측의 기초적인 의견 교환</li> <li>중소기업작업반: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보 교환</li> </ul>
한·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회의 (2012년 7월 5일)	- FTA 이행상황 점검 및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 농산물위원회, 섬유의류위원회, 정부조달 작업반 (2012년 11월 7~8일)	
한·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회의 (2012년 11월 28일)	-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 양국간 규제협력 방안 논의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 경제권과 체결한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였고 발효까지 험난한 대내협상과정을 거친 만큼, 발효 1년에 맞춰 제한적으로나마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관세인하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반면, 농업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쟁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내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용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양국간 상품 무역 및 서비스, 투자 분야의 변화를 살펴봄으로 써 한미 FTA 발효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다만 사용가능한 자료의 제한과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평가는 한계를 가짐.



## 2. 상품교역 평가

### 가. 상품 일반

#### 1)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 현황

- 한국의 對미 교역은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수출은 2011년 약 12.8%의 증가율에서 2012년에는 4.1%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2011년 10.3%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2.8% 감소하였음.
-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약 15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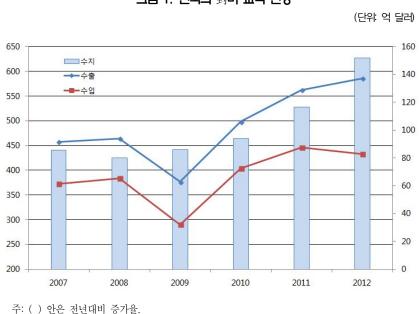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對미 교역 현황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규모 변화

-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3~12월 한국의 對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7.7% 감소함.
- 2011년 對미 수출증가율(11.3%)과 비교하면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수출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동 기간 對세계 수출이 2.8%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對미 수출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FTA 발효 이후 對미 수입은 2011년 對미 수입증가율(10.5%)과 2012년 對세계 수입증가율(-3.4%)에 비해 크게 감소함.



- 한국의 對미 수출입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한미 FTA 발효로 인한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對미 수출을 전년 동기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1.1% 증가에 그쳤으나. 요인별 분석결과 한미 FTA의 효과는 12.7%로 나타남.
-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2012년 3~12월간 한국의 對미 수출은 동기대비 11.58% 감소했었을 것임을 의미함.
- 한미 FTA의 관세효과는 0.09%, 관세 외 효과는 12.6%로 나타나, 관세 즉시철폐로 인한 효과보다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제도 개선,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등 전반적인 무역환경의 개선 요인으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로는 자동차 부품에서 관세효과가 5.5%로 가장 높았고, 화학, 금속, 기타기계 등에서는 관세 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미 FTA가 발효 후 對미 수입은 전년동기 7.7% 감소했으나, 한미 FTA 효과는 7.6%로 사실상 한미 FTA로 인한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없는 상황에서는 對미 수입은 현재보다 더 크게 감소했었을 것으로 추정됨.
- 對미 수출과 달리 對미 수입에서는 환율효과로 인한 수입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 최근 지속적인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상승한 반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하락해 미국의 상대물가 상승이 악화요인으로 분석됨.
- 한미 FTA의 효과는 자동차와 부품에서 가장 높은 172.2%, 그 다음으로는 기타제조업에서 15.2%를 기록했으며 기타 산업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표 2. 한국의 對미 수출입 변화 분해(2011.3~12과 2012. 3~12간 중감률)

(단위: %)

			한국의	l 對미 <b>수출</b>	현	국의 對미 수	입	
	산업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FT 관세 외 효과	A 효과 관세효과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FTA 효과
	농림수산광업	△8.40	_	-	-	△20.30	0.13	_
	섬유	△1.30	△0.01	0.00	△0.10	△10.30	△2.11	_
	화학	5.00	_	75.46	0.00	0.30	0.00	_
제	금속	13.90	_	31.70	1.45	△8.20	△2.57	_
조	기타기계	12.10	0.01	58.36	0.19	△10.50	△1.57	_
업	전자	△36.70	△0.01	_	0.94	4.40	△3.74	_
	자동차와 부품	15.40	0.02	-	5.48	24.40	_	172.17
	기타제조업	3.40	_	-	0.27	△10.70	△1.68	15.17
	전체	1.10	_	12.59	0.09	△7.70	△1.51	7.57

주: -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이며, 농림수산은 2012.12월까지의 통계로 이후 산업별 분석에서의 농업과 분석기간이 다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 및 추정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계산



#### 글상자 1. 수출입 요인별 분애방법 및 지료

- EU(27개국)의 자료가 확보가능한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각국의 GDP, 실질실효환율, 관세율, 한·미 FTA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함.
- 미국의 수입액 추정에는 미국의 GDP, 각 수입상대국의 실질실효환율, 관세율 한·미 FTA 더미 변수를 포함하는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함.
- 분석대상은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 EU, 중국, 일본, 한국의 HS코드 6단위 품목별 수 입액임.
- 설명변수로는 미국의 분기별 GDP, 국제결제은행의 각국별 실질실효환율, NAFTA와 한미 FTA를 반영한 관세율, 한·미 FTA 더미(2012년 3월 이후 1, 이전은 0)를 사용
- 기본모형에 국별 더미포함, 환율의 시차변수 포함, 모든 국가의 환율포함 등 총 8개의 다른 모형을 설정한 뒤 추정하였으며, 한·미 FTA의 對미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한국의 수입액 추정에는 한국의 GDP, 각 수입상대국의 실질실효환율, 한·EU FTA, 한·아세안 FTA, 한·미 FTA 더미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이 사용됨.
  -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일본, 미국, EU, 아세안의 HS코드 6단위 품목별 수입액임,
  - 설명변수로는 한국의 분기별 GDP, 국제결제은행의 각국별 실질실효환율, 한·미 FTA더미(2012년 3월 이후 1, 이전은 0), 한·EU FTA더미 (2011년 7월 이후 1,이전은 0), 한·아세안 FTA 더미(2007년 6월 이후 1, 이전은 0)를 포함
  - 기본모형에 국별 더미 포함, 환율의 시차변수 포함 등 총 3개의 다른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미 FTA가 한국의 對미 수입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음.
- 추정분석에 기반하여, 한국의 對미 총 수출입 변화를 환율효과와 한·미 FTA 효과로 분해함.
- 2011년 3~12월과 2012년 3~12월 수출입변화율을 계산하고, 같은 기간 실질실효 환율변화분, 관세율 변화분과 각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요인별 효과를 계산함.

#### 3)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다양성 변화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미 교역품목1)은 수출에서 116개 증가한 반면 수입품목은 21개 감소하여 수출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對미 수출은 총 186개 품목, 對미 수입은 총 192개 품목이 새롭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HSK 2012 개정 시 코드가 변화하지 않은 품목(미변경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품목의 변화를 비교할 경우, 한국의 對미 수출에서는 기타제조업과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총 116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제품과 자동차와 부품에서 품목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총 21개 품목이 감소함.

<sup>1)</sup> HSK 10단위를 이용함.



#### 표 3. 한·미 FTA 발효 전후 한국의 對미 수출입 품목 수 변화?)

(단위: 개)

	N 41	2011년	2012년	11-11-0	1110		미변	경③		7-10
	산 업	품목 수	품목 수	삭제①	신설 <b>②</b>	감소④	증가⑤	불변⑥	중감⑦	중감(8)
	농림수산광업	215	238	71	89	33	38	111	5	23
	제조업	5,190	5,353	188	240	613	724	4,389	111	163
	섬유제품	392	411	7	12	53	67	332	14	19
	화학	907	945	32	36	122	156	753	34	38
수 출	금속	616	619	14	18	81	80	521	-1	3
출	기타기계	764	767	17	7	75	88	672	13	3
	전자	189	193	1	4	15	16	173	1	4
	자동차와 부품	70	65	0	0	13	8	57	-5	-5
	기타제조업	2,252	2,353	117	163	254	309	1,881	55	101
	수출 총계	5,405	5,591	259	329	646	762	4,500	116	186
	농림수산광업	432	487	64	139	73	53	295	-20	55
	제조업	439	456	4	12	59	68	376	9	17
	섬유제품	1,792	1,814	54	77	135	134	1,603	-1	22
	화학	833	845	22	36	56	54	755	-2	12
수	금속	899	918	10	20	88	97	801	9	19
입	기타기계	238	239	4	3	9	11	225	2	1
	전자	107	108	3	3	8	9	96	1	1
	자동차와 부품	3,322	3,387	103	187	281	262	2,938	-19	65
	기타제조업	7,630	7,767	200	338	636	635	6,794	-1	137
	수입 총계	8,062	8,254	264	477	709	688	7,089	-21	192

- 주: 1) ①은 HSK 2012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품목
  - 2) ②는 HSK 2012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품목
  - 3) ③은 HSK 2012 개정 시 변경되지 않은 품목.
  - 4) ④는 2011년 수출입 실적이 존재하나 2012년 수출입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품목
  - 5) ⑤는 2011년 수출입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나 2012년 수출입 실적이 존재하는 품목.

  - 6) ⑥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수출입 실적이 존재하는 품목. 7) ⑦은 미변경 품목 중 2012년 수출입 품목의 증감으로 ⑤-④와 같음
  - 8) ⑧은 전체 품목 중 2012년 수출입 품목의 증감으로 ⑦+②-①과 같음.
  - 9) 분석기간은 매년 3~12월을 기준으로 함
-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계산.

#### 4)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활용률 분석**

- 2012년 3~12월 중 한국의 수입 활용률은 52.9%로 수출 활용률 41.7%보다 높아 對미 수입에서 한 ·미 FTA가 더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광업과 섬유제품에서는 양국이 모두 높은 활용률(60% 이상)을 보이는 반면, 자동차와 부품에서는 수 입(50.3%)이, 기타기계에서는 수출(65.6%)이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한국의 對미 수입규모가 큰 화학제품은 활용률(52.5%)이 높은 반면 對미 수출규모가 큰 자동차와 부품 의 활용률(19.2%)은 상대적으로 낮음.
- ㅇ 이는 한국의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함 을 의미함.
- ※ 활용률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수입액에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sup>2)</sup>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버전 3의 2단위를 기준으로 산업을 구분함.



#### 표 4. 한·미 FTA 특예관세 활용률

(단위: 백만 달러, %)

						<u> </u>
	र्	한국의 對미 수업		र्	한국의 對미 수출	35
산 업	관세적용 수입액	적용대상 수입액	활용률	관세적용 수입액	적용대상 수입액	활용률
농림수산광업	1,126	1,310	85.9	32	37	86.1
제조업	9,282	18,372	50.5	11,424	27,464	41.6
섬유제품	45	111	40.2	403	645	62.6
화학	3,539	5,874	60.2	2,848	3,682	77.3
 금속	535	1,238	43.2	883	1,365	64.7
기타기계	873	2,896	30.1	1,986	3,027	65.6
전자	42	143	29.4	162	319	50.9
 자동차와 부품	540	1,074	50.3	2,477	12,870	19.2
기타제조업	3,709	7,036	52.7	2,664	5,556	48.0
전 산업	10,408	19,682	52.9	11,456	27,502	41.7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 나.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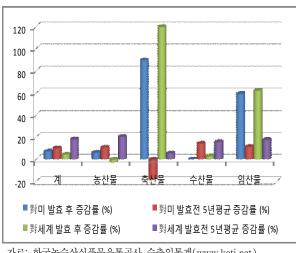
#### 1) 對미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농림축수산물 전체 수출은 이전 동기대비 7.4% 증가하여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對세계 수출 증가율(4.5%)보다는 높았으나 발효 이전 5개년 평균증가율(10.2%)보다는 낮아 한미 FTA로 인한 수출증가효과는 불명확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수출이 증가하고 증가율도 또한 對세계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발효 이전 5개년 평균치에 비해 모두 떨어져 전체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對미 농수산물 수출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이전 동기대비 14.5% 감소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對세계 수입증가율(4.7%)이나 과거 5년 평균 對미 수입변화율(2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발효 이전 5개년간의 평균 對미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연평균 20.0%로 증가해 왔으나,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세( $\triangle 14.5\%$ )로 반전
- 對미 수입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對세계 농림축수산물 수입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음.
- 결국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다소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했으나, 이를 對세계 수출입 동향과 비교하면 특별히 한미 FTA의 영향으로 특정할만한 점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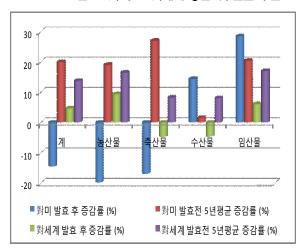
- 따라서 한미 FTA 발효 1년을 기점으로 對미 농림축수산물 전체 교역에 한미 FTA가 미친 특별한 영향은 아 직은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 對미 및 對세계 농림축수산물 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www.kati.net).

그림 3. 對미 및 對세계 농림축수신물 수입



- 한미 FTA 발효 전후 농림축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의 변화를 보면, 농산물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하락세는 아니며, 절대적 수치로는 오히려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수산물은 다소 하락하였으 며, 특히 축산물은 뚜렷이 하락함.
- 한미 FTA 이후 수입이 증가한 과일류의 경우 큰 변화가 없으며, 감귤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급등했다가 최 근 다시 발효 이전 수준으로 복귀함.
- 수박, 토마토, 참외, 딸기 등 미국산 수입과일과 대체가 예상되는 과채류의 생산자가격도 예전과 같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한미 FTA 발효 이전과 큰 변화는 없으며 일부는 오히려 상승함.
- 한미 FTA 이후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 축산물 생산자가격의 하락은 국내 축산물공급의 과잉이 주요 워인으 로 보임.
- ㅇ 구제역 파동 이후 국내 축산 기반이 정비되면서 돼지 및 젖소의 사육 마리 수가 2011년 1/4분기 이후 급격히 회복되었으며. 한육우의 경우 한미 FTA 발효와 관계없이 사육 마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 주요 품목(군)별 접근 영향 평가

- 곡물류의 對미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할 때 44% 감소했으나. 과일류는 38% 증가함.
- 주요 수입곡물인 옥수수의 對미 수입이 한미 FTA 발효 이후 66% 감소했기 때문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증가함.
- 과일류에서는 특히 관세감축률이 큰 오렌지(35.9%), 버찌(74.2%), 포도(27.2%), 레몬(74.2%)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여타 다른 농산물 수입은 한미 FTA 발효 후 일부 증가한 품목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한 상황임.
-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포유가축육류의 對미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했고, 낙농품과 가금육류 도 유사한 추세를 보임.
- 쇠고기 對미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전 동기대비 17% 감소했으며, 돼지고기도 28% 감소했음.
- 이와 같은 수입 감소는 201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국내 쇠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對 미 수입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임.
- 對미 수산물 수입의 약 80%를 담당하는 어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여타 수산물은 다소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한미 FTA 발효 이전 5개년 평균 어류의 對미 수입증가율 2.6%였으나 발효 이후 직전 동기대비 수입증가율 은 24.6%로 확대

표 5. 곡물류, 육류, 어류 對미 수입액 추이(2009. 3 ~ 2013. 1)

(단위: 백만 달러, %)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후 증감률(전년	발효 이전 5년 평균
		2009. 3 ~ 10. 1	2010. 3 ~ 11. 1	2011. 3 ~ 12. 1	2012. 3 ~ 13. 1	동기 대비) (%)	등감률 (%)
	곡물	1,628	2,104	2,435	1,354	△44.4	17.0
곡물류	과일	183	303	348	481	38.3	13.2
	기타농산물	1,339	1,730	2,054	2,043	△0.5	9.4
	쇠고기	272	430	601	498	△17.1	58.2
포유가축육류	돼지고기	182	185	495	357	△27.8	21.7
<b>工</b> 市/「五五市	낙농품	52	109	181	187	3.2	24.6
	가금육류	40	76	128	81	△36.8	28.9
 어류	어류	92	91	116	144	24.6	2.6
<u>√I</u> π	기타 수산물	25	27	38	32	△15.8	2.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www.kati.net).

### 다. 제조업

- 한미 FTA 협상 타결 시 주요 제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對미 수출 증가가 기대되었음.3)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절감효과가 미국의 현지시장 진출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

<sup>3)</sup> 대한민국 정부, 『알기 쉬운 한미 FTA』.(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1732)



-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가 2.5%에서 4년 후 일괄철폐되고, 자동차부품도 관세가 즉시철폐됨에 따라 경 쟁국들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됨.⁴)
- 섬유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섬유분야 주력 수출품목의 상당수에 대해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으로 섬유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고관세 품목인 의류분야의 경우 인조스웨터(32%)는 즉시철폐, 남성면셔츠(19.7%), 여성면바지(16.6%)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 기계는 평균 1.7%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연간 약 2.9억 달러의 對미 수출 증가를 예상
- 전자 및 IT 제품의 경우 FTA가 발효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품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한미 FTA 발효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가시적인 수출입 증가를 보인 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며, 이외 주요 산업에서는 아직 뚜렷한 수출입 증가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는 한국의 對미 주요 수출입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이전부터 이미 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나 단계적 철폐로 1년차에 관세하락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한국의 對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0.3% 증가했고, 對미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함.
- 對미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수출의 특징은 한미 FTA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부품뿐 아니라 관세율 변동이 없는 승용차의 수출도 증가했다는 점임.
-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었던 2.5%의 관세율이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즉시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성차의 현지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품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품목의 활용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세인하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승용차의 對미 수출 증가는 미국시장에서의 꾸준한 수요 회복과 국산차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임.<sup>5)</sup>
- 다만 같은 기간 일본의 對미 승용차 수출도 급증해, 상기 성과를 한·미 FTA 효과로 보기는 어려움.
- ※ 미국 승용차 시장 판매 추이: (2008)13,195천 대(-18.0%) → (2009)10,402천 대(-21.2%) → (2010)11,555 천 대(11.1%) → (2011)12,737천 대(10.2%) → (2012.1~11)13,089천 대(13.9%)

#### 표 6. 지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對미 상위 10개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Ī	HST	품 명	<u> </u>		2012년	관서	ll율	증감률	활용률
	8단위	품 명	<u> </u>	2011년	2012년	기본	FTA	<u> </u>	결공필
	87032300	Of a cylinder capacity 1,500cc ~ 3,000cc	승용자동차	6,400	7,600	2.5	2.5	18.7	0.0
	870324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3,000cc	승용자동차	1,191	1,365	2.5	2.5	14.6	0.0

<sup>4)</sup> 대한민국정부, 「알기쉬운 한미 FTA」 (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1732)

<sup>5)</sup> 지식경제부(2013), 「2012년 자동차 산업! 생산, 내수 감소, 수출은 전년수준 유지」, 보도자료 (1월 11일)



HST	표 대	눇	001113	001013	관시	메율	スパロ	하. 이 근
8단위	품 명	호	2011년	2012년	기본	FTA	증감률	활용률
87082950	Other	부분품	539	715	2.5	0	32.8	60.5
87089981	Other	부분품	565	573	2.5	0	1.4	68.0
84099150	Other	부분품	167	234	2.5	0	40.5	17.4
87084011	For the vehicles of 8701.20, 8702 $\sim$ 8704	부분품	87	231	2.5	0	165.5	76.5
87083050	for Other vehicles	부분품	228	228	2.5	0	0.1	50.9
87088065	Other	부분품	172	194	2.5	0	12.8	58.8
87032200	Of a cylinder capacity 1,000cc ~ 1,500cc	승용자동차	1	187	2.5	2.5	13,352.5	0.0
87089375	Other	부분품	180	178	2.5	0	-0.8	85.8
산업계			10,915	13,135			20.3	18.9

주: 1) 미국의 대한국 수입자료를 이용함.

2) FTA는 발효 1년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의미함.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및 씨엘관세정보(http://www.cl24.co.kr/)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계산.

- 한국의 對미 수입 상위 4개 품목은 모두 승용차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이러한 수입증가는 8%에 달하던 승용차의 관세율이 한미 FTA로 인해 4%로 하락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활용률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승용차산업은 한미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對미 수입은 비교적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는데, 이는 2012년에 국내 자동 차산업의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이로 인한 완성자동차의 수입증가 때문으로 보임.
- ※ 실제 2012년의 자동차 수입은 24.6% 증가하여 사상최대 실적(13만 대)을 기록한 반면, 생산은 부분 파업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여 3분기의 생산은 13.9% 감소함.<sup>6)</sup>

#### 표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對미 상위 10개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	TI. 72	크니, ///
HSK 10단위	품 명	<u>ই</u>	2011년	2012년	관 <sup>시</sup> 기본	ll율 FTA	증감률	활용률
					/1근	1.117		
8703239010	신차(2000cc ~ 3,000cc)	승용자동차	48	193	8	4	302.0	88.6
8703337000	신차(디젤 1,500cc 이하)	승용자동차	86	135	8	4	56.8	41.8
8703241010	신차(3,000cc ~ 4,000cc)	승용자동차	77	101	8	4	31.6	94.9
8703321010	신차(디젤 1,500cc ~ 2,500cc)	승용자동차	37	98	8	4	167.3	0.0
8407349000	기타	불꽃점화식 엔진	110	97	8	0	-12.2	0.1
8708999000	기타	부분품	115	85	8	0	-26.4	39.4
8708959000	기타	부분품	55	39	8	0	-29.3	34.6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부분품	40	36	8	0	-9.6	64.0
8703231010	신차(1,500cc ~ 2,000cc)	승용자동차	9	32	8	4	258.9	96.0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부분품	1	28	8	0	2,269.6	9.4
산업계			884	1,099			24.4	49.2

주: FTA는 발효 1년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의미하며, 기본세율은 WTO양허세율과 협정문상 동일(또는 유사)품목의 세율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씨엘관세정보(http://www.cl24.co.kr/)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 섬유제품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과 對미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한국과 미국 모두 관세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하락 정도가 크지 않아 한국의 對미 수출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섬유제품 제조업에 대한 활용률이 對미 수입은 40.2%, 對미 수출은 62.6%로 FTA 관세인하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한국의 對미 수출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對미 수입은 감소함.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대부분 품목들은 미국 기본관세율이 (%로, 한미 FTA 관세혜택이 거의 없는 분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기계의 대한국 수입 활용률은 65.6%로 전반적으로 높아 비교적 낮은 관세율의 하락을 잘 활용함에 따라 한국의 對미 수출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한국의 對미 수입 활용률은 30.1%에 그쳐 상대적으로 특혜관세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크게 감소했으나, 對미 수입은 소폭 증가함.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한미 양국 모두의 관세율이 매우 낮아(대부분 0%)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이 크지 않은 산업에 해당함.
  - 한미 FTA 발효이후 對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수입 증감률은 -36.0%로, 이는 무선통신기기(85171200)에 대한 수출 감소(-45.9%)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무선통신기기 중 스마트폰의 경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이 크게 확대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됨.7)
  - ※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10년) 15.9 → ('11년) 56.8 → ('12.1Q) 78.1 → ('12.2Q) 80.0 → ('12.3Q) 81.1
  - 이와 달리 반도체 중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85414095과 85414060 품목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21.7%, 148.0% 증가함.

### 3. 서비스 평가

- 한미 FTA 서비스 분야 타결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상 당시의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함.<sup>8)</sup>
- 추가개방을 약속한 분야는 대부분 단계적 개방계획 또는 일정 준비기간을 둠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함.

<sup>7)</sup> 지식경제부(2013), 「2012년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수출입 전망」, 보도자료 (1월 1일)

<sup>8)</sup> 채 욱 외(2007),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KIEP 연구보고서 07-06호 pp. 92~98 참고.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협정문에 의거해 개방을 이행한 분야는 법률서비스(1단계), 회계서비스(1단계), 방송서비스(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의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에서 1개국 콘텐츠 한도 확대) 등임.
- 향후 한미 FTA 발효 2년 이내에 법률서비스 2단계 개방(제휴 허용)과 기간통신사업자(단, KT 및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등을 이행해야 하며, 협정 발효 3년 이내에는 PP(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을, 협정 발효 5년 이내에는 법률서비스 3단계 개방 및 회계서비스 2단계 개방을 각각 이행해야 함.
- 한미 FTA에 의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1단계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변호사의 국내 외국법자문사 자격 취득과 미국 법무법인의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이 증가하였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 변화가 나타남.
-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법률서비스 1단계 개방이 이행되면서 국내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진출이 증가함.
  - 2013년 2월 15일 현재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시는 총37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총15개사이며, 이 중 미국 소재 본점사무소에 소속된 외국법자문사는 총 28명, 미국에 본점사무소를 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총 12개임.
  - ※ 우리나라는 한EU FTA에서도 한미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서비스 개방을 약속했으며, 한EU FTA는 한미 FTA에 앞서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됨. 한EU FTA 법률서비스 1단계 개방으로 EU 국가에 본점사무소를 둔 외국법률사무소와 EU 국가 소재 본점사무소에 소속된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진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약속을 포함한 한미 FTA가 타결(2007년 4월 2일)된 이후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무법인의 대형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 전체의 법무법인 소속 평균 변호사 수가 2011년 1월 7.27명에서 2012년 12월 8.4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0대 법인 및 주요업체(총 11개사)의 평균 변호사 수도 같은 기간 159.0명에서 194.0명으로 크게 증가함.
- 회계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시행중인 공인회계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단계 개방 약속이 이행되었으며, 2단계 개방 약속은 협정 발효 5년 시한에 맞추어 이행될 예정임.<sup>9)</sup>
- 회계서비스의 1단계 개방 약속 중 미국 등록 미국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는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용인해 오던 업무형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회계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통신서비스에서는 한미 FTA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는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sup>9)</sup> 공인회계사법에 2단계 개방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도입하였으나, 시행일은 개방 약속을 따름.



100% 허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정 이행을 준비 중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개정안 을 의결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 방송서비스에서는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PP에 대한 채널별 연간 분야별(애니메이션 및 영화)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 제한 완화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 자위성방송사업자PP의 외국 콘텐츠 분기별 1개국 콘텐츠 한도의 확대만 이루어졌음.
- 2013년 3월 현재 2012년 방송서비스 분야별 콘텐츠 편성비율 통계가 가용하지 않아 한미 FTA에 따른 방송 서비스 분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

### 4. 투자 평가

- 미국의 對한 투자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 FTA 발효 이후 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건당 신고금액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의 對한 투자는 2004년 약 47억 달러 유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다시 증 가세로 돌아섰으며 2012년에는 약 37억 달러 규모로 급증한 반면 2000년 803건에 이르던 미국의 對한 투자 신고건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건당 투자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총액과 건당 투자금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2.6%로 상승하여 2010년(15.2%)과 2011년(17.35%)에 비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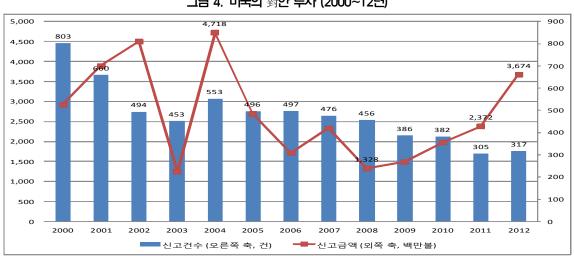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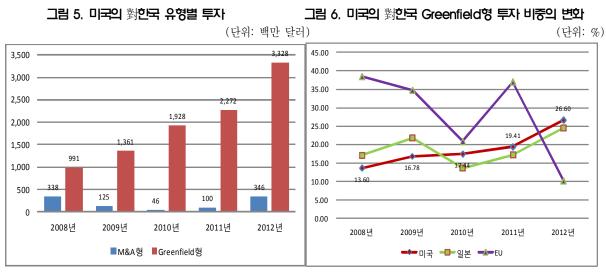


그림 4. 미국의 對한 투자 (2000~12년)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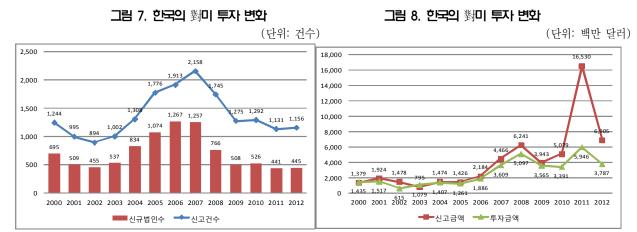


- 또한 2012년에 들어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Greenfield형이, 행태별로는 장기차관 방식의 투자가 증가함.
- 2012년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이 2010년(16%)과 2011년(18%)에 비해 크게 증가(33%)하여 한미 FTA 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의 결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좀더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투자 유형별로 Greenfield형 투자가 투자금액과 비중 모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2년에도 추세를 이어감.
- 투자 행태별(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로는 2012년도 장기차관이 절대금액과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장기 차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에서 크게 증가함.
- 미국의 對한 장기차관형식 투자는 2011년 190만 달러에서 2012년 8.7억 달러로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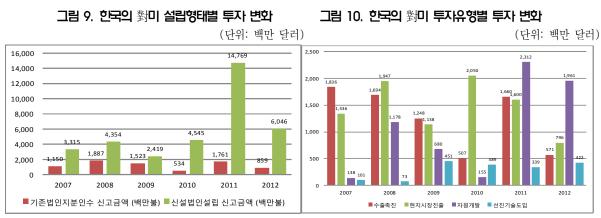
-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의 對미 투자는 신고 건수나 신규 법인 수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투자금액은 20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한 후 2012년 감소하여 FTA 발효와 함께 미국 시장 내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신규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임.
- 對미 투자 건수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7년 신고 건수와 신규 법인 수가 각각 2,158건과 1,257건에 이른 이후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고금액과 투자금액은 한미 FTA 논의가 시작된 2006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2011년에는 약 165억 달러의 신고금액과 약 58억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록하여 정점에 이른 뒤 2012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임.





자료: 수출입은행

- 對미 투자는 한미 FTA 논의가 시작된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미 FTA 추가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2011년에는 전년도의 3배가 넘는 약 165억 달러가 신고되었음.
- 설립형태별로는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기존법인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었음.
- 투자 목적별로는 미국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출촉진이나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내에서 발생하는 장점을 수용하기 위한 자원개발이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수출입은행
-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년 동안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임.
- 2012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한 벨기에 BIT에 근거한 것으로 한미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



### 5. 시사점

- 한미 FTA는 양국간 상품교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활용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와 -7.7% 변화했으나, 한미 FTA의 효과는 각각 12.7%와 7.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국의 경기침체에도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발효자체만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은 아닌 만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요인별 분석결과, 관세효과는 자동차 부품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관세 이외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양국간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향후 성과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 양국간 규제와 기술표준의 차이를 해소하고 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양국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산업별로 한미 FTA의 영향과 활용률이 상이하므로 산업별 맞춤형 후속 대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의 성과는 섬유, 전자, 일반기계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나 자동차 부품을 비롯하여 화학, 금속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등 산업별 성과가 상이하므로 향후 활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지원대 책 마련이 필요함.
- 농업부분의 피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피해발생 유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i)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가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발효 1년차의 감축률이 적었다는 점, ii)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전반적으로 수입이 둔화되었다는 점, iii) 201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한미 FTA 발효 이전 축산물 수입이 급증해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 등과 수입산과 국산 농축산물간 소비대체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세 감축폭이 큰 일부 품목 특히 오렌지(주스 포함)와 버찌, 건포도, 레몬, 아몬드 등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향후 피해 발생 유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까지는 해당 농산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이 발효 이전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수입증가 현상을 피해발생과 연결짓기는 어려운 상황임.
- 한·미 FTA의 성과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수출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서비스 추가개방 분야가 단계적 개방 또는 일시적 유예상황인 바, 아직까지는 법률분야 외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으나 향후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대비책과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를 높여야 함.
- 한·미 양국간 투자는 한미 FTA 발효 효과가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 들의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함.
- 한·미 FTA가 우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인 만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규범 분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KIEP



부표 1. 한국의 對미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			수입						
꼬ㅁᆔ	20	11		2012		꼬디머	20	11		2012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자동차	8,937	32.6	10,833	21.2	18.5	반도체	4,044	23.1	4,477	10.7	10.3	
무선 통신기기	9,238	1.0	5,710	-38.2	9.8	항공기 및 부품	2,857	-12.6	3,145	10.1	7.3	
자동차부 품	5,018	21.8	5,642	12.4	9.6	반도체 제조용장비	2,762	-23.7	2,711	-1.8	6.3	
석유제품	2,588	-25.0	2,896	11.9	4.9	식물성물질	2,154	2.0	1,821	-15.4	4.2	
반도체	2,726	-25.1	2,611	-4.2	4.5	계측 제어분석기	1,260	13.6	1,420	12.7	3.3	
철강관 및 철강선	1,714	41.3	2,009	17.2	3.4	곡실류	1,766	26.5	1,376	-22.0	3.2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760	327.4	1,947	156.2	3.3	원동기 및 펌프	1,222	19.3	1,208	-1.1	2.8	
고무제품	1,655	27.4	1,798	8.6	3.1	합금철선철 및고철	1,425	18.3	1,189	-16.6	2.7	
컴퓨터	1,482	8.7	1,523	2.8	2.6	석탄	1,341	164.2	1,128	-15.9	2.6	
원동기 및 펌프	1,149	104.1	1,380	20.1	2.4	육류	1,322	89.5	1,043	-21.1	2.4	
소계	35,267	10.1	36,349	3.1	62.1	소계	20,153	10.6	19,518	-3.2	45.0	
총계	56,208	12.8	58,525	4.1	100.0	총계	44,569	10.3	43,341	-2.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부표 2. 한국의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
		수출 수입						
연도	2011	2012	한미 F 2012년	『A 이후 3∼12월	2011	2012	한미 F 2012년	『A 이후 3∼12월
	증기율	증가율	금액	증가율 <sup>1)</sup>	증가율	증기율	금액	증가율 <sup>1)</sup>
미국	12.8	4.1	487.8	1.1	10.3	-2.8	355.0	-7.7
세계	19.0	-1.3	4,603.5	-2.5	23.3	-0.9	430968	-3.8
중국	14.9	0.1	1,140.3	-0.5	20.8	-6.5	678.4	-8.4
ASEAN	35.0	10.2	673.9	9.4	20.5	-2.1	432.0	-2.6
EU	4.2	-11.4	409.2	-10.3	22.5	6.2	422.9	3.8
일본	40.8	-2.2	320.2	-5.9	6.3	-5.8	534.1	-7.8
인도	10.7	-5.8	999.9	-4.3	39.1	-12.3	58.6	-11.1
러시아	32.8	7.7	95.1	6.3	9.6	4.6	94.5	0.1
브라질	52.5	-13.0	83.1	-14.4	34.6	-4.1	47.0	-11.9

주: 1) 2011년 3~12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 부표 3. 미국의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f	출			f	드입	
연도	2011	2012	한·미 F 2012년	TA 이후 3~12월	2011	2012	한·미F' 2012년	TA 이후 3~12월
	증가율	증가율	금액	증가율 <sup>1)</sup>	증기율	증기율	금액	증기율 <sup>1)</sup>
한국	11.8	-2.5	351.4	-5.4	16.0	3.9	499.1	2.7
세계	15.9	4.5	13,047.3	3.5	15.5	3.1	19,198.6	1.9
캐나다	13.2	3.9	2,463.1	2.7	14.1	2.8	2,711.7	1.4
멕시코	21.5	9.1	1,821.8	7.5	14.5	5.6	2,334.5	4.1
중국	13.1	6.4	934.6	6.8	9.4	6.6	3,631.3	6.6
일본	8.5	6.6	589.5	6.3	7.1	13.6	1,221.1	12.6
EU	11.8	-1.0	2,215.2	-3.0	15.3	3.4	3,228.0	2.4
브라질	21.5	1.8	375.3	1.8	32.7	1.1	264.6	-3.9
ASEAN	8.2	-0.9	644.5	0.4	9.7	4.0	1,039.2	3.7

주: 1) 2011년 3~12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4.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2013년 2월 15일 기준)

		02 20(20:02 22 :02 :23
본점사무소 소재지국	본점사무소명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인원(명)
	Ropes & Gray	2
	Sheppard Mullin	1
	Cohen & Gresser	1
	Simpson Thatcher & Bartlett	3
	McDermott Will & Emery	1
	Paul Hastings	6
미국	Cleary Gottlieb	5
	Squire Sanders	3
	Covington & Burling	1
	O' Melveny & Myers	2
	K&L Gates	1
	Greenberg Traurig	1
	기타	1*
	Clifford Chance	3
성고	DLA Piper	2
영국	Herbert Smith Freehills	3
	기타	1*
합계	<del>-</del>	37

주: \* 소속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를 나타냄. 자료: 법무부.